

첫마중길 · 팔복예술공장... 전주 도시디자인 '최고'

전주시,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주시가 지난 3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DESIGN KOREA 2018' 개막식 메인행사도 진행된, 제20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산업디자인 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창의적인 디자인경영으로 국가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 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포상이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모를 통해 예심과 본심을 거치고 프레젠테이션 및 공개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국내 최고의 공정성과 권위를 지닌 디자인상으로 알려져 있다.

'DESIGN KOREA'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강국 구현 및 디자인 산업 역량 증대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10월 31일 ~ 11월 2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다.

디자인 전문가들로부터 디자인의 정책이념 및 전략, 디자인 경영활동, 디자인 경영성과 부문 등에 걸쳐 엄격한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도시경관과 디자인을 통한 지자체의 도시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해마다 많은 지자체에서 참가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2007년부터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주시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전주시민의 도시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내외적으로 디자인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또한, 민선 6기 들어 첫마중길, 팔복예술공장,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동문문화거리, 전주생태동물원 리모델링, 숲속 오감놀이터, 예술승강장 등 '사람·생태·문화' 3대 원칙에 발맞춰 도시 공간을 다양하게 디자인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하는 대

한민국디자인대상은 전주시의 도시디자인 기본 방향이 지속성을 지니고 다른 분야 정책과 잘 맞물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의 사람을 담은 그곳이고 도시가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전주시는 도시 전체를 '지붕없는 미술관' 개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도시로 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자체부문 대상(대통령 표창)은 전주시가 수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담양군, 우수상(산자부장관 표창)은 부산시 사하구에서 수상했다. /송효철 기자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1일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는 다른 점이 많아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덕진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동영상 시청, 과다 입원치료,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덕진구에 사는 이모씨(51)는 "생소하지만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어 고맙웠고, 건강까지 체크해줘서 내 건강 상태를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덕진구의 의료급여수급자는 총 9,973명이다. /송효철 기자



“고형연료사용·제조시설 이전 특별법 제정에 힘 보태야” 김승수 전주시장이 1일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고형연료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경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 말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4%(전체 218명 중 14명)으로 15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 미흡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우려 시간대 유흥가 순찰 및 홍보를 전개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흥가, 식당 및 관광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특정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단속 및

주 1회 이상 도내 동시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경찰관기동대 등 경력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 등 음주운전 의지를 사전에 제압해 나갈 예정이다 밝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경정 이

석현)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 경찰도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재범률과 재범사고가 높은 것은 계속적, 반복적인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꽃심' 참여작가들의 작품 감상하러

전주시, 20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이동형 갤러리 합동전시회 개최

20여 년간 버려졌던 폐공장을 문화·예술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에서 다양한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합동전시회가 열렸다.

전주시는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2018년 이동형 갤러리 꽃심 참여작가 합동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전주시가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을 위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이동전시장이다.

이번 합동 전시회에서는 올해 이동형 갤러리 꽃심에 참여한 작가 20명의 수채화와 서양화, 한국화, 도예 작품, 테라코타 등 다양한 작품이 한 자리에서 전시된다.

또한, 팔복예술공장 기획전시실에

서는 현재 '팔복예술공장 입주작가 특별기획전'도 진행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척박한 여건으로 인해 아트마켓 진입이 어려운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와 작품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접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미술관의 문턱을 낮춰 다소 멀게 느껴지는 예술 작품들을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동형 갤러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동형갤러리 꽃심의 한 참여작가는 "전주시에서 격이 없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공유할 수 있어 좋았으며, 이번 합동전시회를 통해 다른 참여 작가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안된다”

대법원, 사상 첫 판결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역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사상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판단을 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

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어떤 제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중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사건에서 그 양심이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하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현재 227건이다. /뉴시스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공공직자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